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인터뷰

“3년 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SAP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를 것”

변중환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부사장 인터뷰

7월 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한국오라클 본사 변중환 한국 오라클 부사장은 “지난해 CRM과 HCM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을 확보했다”며 “3년 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SAP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달부터 2014년도 회계연도를 시작했다. 이 같은 변 부사장의 자신감은 한국오라클이 지난 회계연도 기준 아시아태평양지역 애플리케이션 사업부에서 유일하게 목표치를 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변 부사장은 “중견기업 대상 ERP제품인 ‘JDE’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 성장하는 등 중견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며 “대형 기업들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영업과 원백(자사 제품으로 교체) 사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오라클이 ERP보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는 CRM과 HCM이다. 한국IDC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ERP시장은 SAP(50%), 더존비즈온(17.9%), 오라클(9.8%) 순이다. 그러나 CRM 시장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닷컴을 제외하고 SAP, 오라클, MS 등 다국적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는 “1~2년 내 국내 SAP ERP 위에 오라클의 시벨 CRM이 올라가도록 고객을 확보할 것”이라며 “대형 고객사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CRM시장은 ERP시장보다 훨씬 크고 도입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오라클은 또 HCM 제품인 ‘피플소프트’ 역시 국내 인적자원관리 시장에서 SAP보다 한 수위에

설 것으로 기대했다. 피플소프트는 현대중공업, CJ그룹 등 국내 대형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변 부사장은 “경쟁사인 SAP제품은 재무 중심의 HCM 솔루션이라 진정한 인재관리솔루션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피플소프트는 인재 관련 라이프사이클을 총 망라하는 등 인재관리 전문성이 뛰어나 기업들이 먼저 제품을 찾아오는 솔루션으로 국내 HC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 07. 04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년 07월 04일 목요일 010면 전체

인터뷰 변 중 환 한국오라클 부사장

“3년 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SAP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한국오라클 본사에서 만난 변중환 한국오라클 부사장(사진)은 “지난해 CRM과 HCM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을 확보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내 앱시장서 3년내 1위 달성”

한국오라클은 지난달부터 2014년도 회계연도를 시작했다. 이 같은 변 부사장의 자신감은 한국오라클이 지난 회계연도 기준 아시아태평양지역 애플리케이션 사업부에서 유일하게 목표치를 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변 부사장은 “중견기업 대상 ERP제품인 ‘JDE’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 성장하는 등 중견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며 “대형 기업들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영업과 원백(자사 제품으로 교체) 사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사가 ERP보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는 CRM과 HCM

이다. 한국IDC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ERP시장은 SAP(50%), 더존비즈온(17.9%), 오라클(9.8%) 순이다. 그러나 CRM 시장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닷컴을 제외하고 SAP, 오라클, MS 등 다국적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는 “1~2년 내 국내 SAP ERP 위에 오라클의 시벨 CRM이 올라가도록 고객을 확보할 것”이라며 “대형 고객사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CRM시장은 ERP시장보다 훨씬 크고 도입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오라클은 또 HCM 제품인 ‘피플소프트’ 역시 국내 인적자원관리 시장에서 SAP보다 한 수위에 설 것으로 기대했다. 피플소프트는 현대중공업, CJ그룹 등 국내 대형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